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층 사무실 063-2400-2410  
063-2400-241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5월 7일 화요일 (음 4월 3일) 제228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 전주 특례시 지정, 전북도민 하나로

전주시가 추진하는 특례시 지정이 전북도민을 하나로 묶는 기폭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와 경제, 문화계는 물론 지역 종교계까지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내놓으며 각 계층의 결집이 가속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시 없는 도청 소재지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이 지난 3일 종료됐다.

이번 서명운동은 주민센터 등 공공서에 비치된 서명부에 시민들이 직접 서명하는 오프라인 방식과 스마트폰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됐다.

지난달 4일 시작된 서명운동은 전주 특례시 지정의 절박함을 인지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등 자생단체가 주축이 되면서 탄력이 붙었다.

전주시새마을회와 전주시새마을협의회, 전주시새마을부녀회 등 새마을회

### 범시민 서명운동 성료

주민자치위 등 자생단체

주축 되면서 탄력 붙어

경제 등 각 분야로 확대

차별받아온 도민 울분

서명운동으로 표출돼

올회원들은 지난달 20여 일 동안 인후동 안골 광장에서 100여명의 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전주 특례시 지정 범시민 서명 부스를 운영해 왔다.

또 전주시 35개동 협의회와 부녀회에서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전주 특례시 지정에 힘을 불어넣었다.

전주지역 평생학습기관들도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원 사격에 적극

나섰다.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과 전주지역 청소년 수련시설, 덕진노인복지관, 서원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등 20여개 평생학습기관들도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손을 맞잡았다.

자생단체들이 불을 붙인 서명운동은 경제, 문화, 체육, 종교계 등 각 분야로 확대됐다.

지난달 9일과 10일 이틀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임직원들과 기술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협의회 등 100여명은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범시민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전주 명예를 높이고 전주발전에 기여해 온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들 등도 전주 특례시 지정에 힘을 불어넣었다.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회는 지난달 16일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특례시 지정 서명운동과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한 목소리'로 뜻을 모았다.

문화계와 체육계에서도 어깨를 나란히 했다.

전주시여성자활활동센터 등 봉사단과 지역 문화계 등은 지난 2일 전주국제영화제 주요 행사장인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영화제를 찾는 영화인과 전국 영화팬들을 상대로 서명운동 부스를 운영했다.

또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여행객과 전주동물원 관람객 등 타 지역 주민들도 서명운동에 동참하면서 전주 특례시 지정 당위성에 힘을 실기도 했다.

전북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전주 시민들의 함성이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울려 퍼졌다.

지난달 3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모터스FC의 K리그 홈경기에서는 전북현대모터스 우승을 기원하며 '특례시 지정 촉구, 전주시의 날' 행사를 동시에 가졌다.

종교계에서도 '전주 특례시'를 열망했다.

전주불교연합회는 최근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기념 '전주 특례시 지정 기원 법회와 사찰음식 만찬'을 열었다.

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을 기원하는 법회를 열고,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이번 서명운동이 정치와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아온 전북도민의 울분이 이번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으로 표출된 것 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광역시 없는 전북에서 도청소재지이자 중추도시인 전주시가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는 염원이 시민들 사이에서 집약되고 있는 분위기다.

전주시민 최모씨(50)는 "정부는 말로만 지방분권을 운운하지 말고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광역시 없는 전북에서 도청소재지인 전주시가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지역상생발전기금 영구 존치 공동 추진"

지방분권법 전북회의 성료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전북회의가 송하진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전북도청에서 개최됐다.

(관련사진 3면) 전국분권협의회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확정된 정부의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와 관련한 지역별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분권강화를 위한 시·도 간 협력 방안 등을 토의했다.

먼저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제를 통해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된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분권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서 '전북도 재정분권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북재정포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민정 교수(원광대 행정학과)가 정부의 재정분권 방향과 이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 전략에 관한 발제를 나섰다.

여기에서 박 교수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소비세 4% 인상을 통한 지방세 확충 방안이 소수 지자체에 지방세를 인상 혜택이 편중될 수 있고, 균등회계를 중심으로 한 3.5조원의 지방이양 역시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소비세 균등 이양 재정 감소분의 선(先) 배분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영구적 존치 등 균형발전이 전제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각 시·도와 함께 공동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재언했다.

이어진 분권현안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분권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전략 발굴과 향후 협력 사업 마련에 대한 의견 개진과 청취가 이뤄졌으며, 참석자 전원 합의로 자치분권 관련법령 제·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김진성 기자

오늘부터 '새만금환경청' '전북환경청'으로 명칭 변경

환경부 소속 새만금지방환경청이 7일부터 '전북지방환경청'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다. 새만금환경청은 전북 지역의 환경업무 총괄하고 있지만, '새만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관 명칭 때문에 관할 구역이 새만금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 따라 기관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진성 기자

### 전주 곳곳 어린이날 행사 '풍성'

## '하고싶은 것 · 보고싶은 것 경험할수 있어 즐거웠어요'

자연생태관에서 반딧불이 체험 · 전주박물관서 어린이 축제 국립유형무산원서 창작 인형극 · 전주동물원서 문화 한마당

지난 제97회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전주지역 곳곳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풍성한 문화행사가 열렸다.

전주시는 제97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지난 3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어린이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행사를 전주시 내 곳곳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전주자연생태관에서는 연휴 3일간 애완조류전시와 대형육지거북 체험관 운영과 어린이를 위한 전통놀이인 고누와 쌍용, 반딧불이·다더귀 체험과 가족 영화 등을 상영했다.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옥의 뜨라과 어린이박물관, 강당 등에서 '2019년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 축제'를 개최했다. 어린이 축제의 모든 행사 참가

비는 무료로 진행해 많은 인파가 몰렸다.

이 밖에도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4일 오후 4시부터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창작 인형극 '꼭두, 80일간의 세계일주' 공연을 선보였다.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탈미를 소재로 주인공 박철지의 세계 여행을 꼭두각시 놀음으로 소개하고 어린이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바랍개비, 쿠키 장식 꾸미기, 드림 캐처 만들기, 나만의 인형 만들기 행사도 열렸다.

아울러, 삼천동 거마공원(삼천도서관 옆)에서는 '어른들이 선물하는 아이들의 특별한 하루 2019 삼천초록별



청룡열차 타며 즐기는 어린이날

제97회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전주시 전주동물원에서 각종 행사가 열린 가운데 동물원 내 놀이동산을 찾은 부모와 어린이들이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워하고 있다.

축제가 열려 어린이와 부모들이 함께 즐겁고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주교육대학교에서도 어린이날 당일 오전 10시 캠퍼스 내에서 다양한 체험위주의 어린이날 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의 주최로 다양한 체험마당과 볼거리 등 15개 프로그램이 운영됐

다.

또한,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전주지회는 5일 전주동물원 중앙 잔디광장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문화축제 한마당을 열고 각종 레크리에이션과 민속놀이, 어린이댄싱, 버블쇼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어린이가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전주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이라며, "가족들도 함께 어릴 적 추억을 되새기며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유투브 ch.279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리저던트 23F  
JJC전북총국 :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